

# 송미령 “보릿고개 극복 경험으로 K-농업 아프리카에 전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韓·아프리카 농업컨퍼런스 참석  
K-농업 아프리카 진출 발판 마련  
2321t 종자 취약계층에 제공 계획

정부가 아프리카 대륙과 농업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관계' 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는 5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다. '식량 및 핵심광물 안보 강화'를 주제로,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업 기술력을 전파하고, 아프리카의 풍부한 핵심 광물 개발을 추진하는 등 상호 호혜적 협력 추진방안 논의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회의 참석을 앞둔 송 장관은 “한국과의 농업 협력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보릿고개를 극복한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의 농업 발전을 돕겠다”고도 했다. 그는 K-푸드 및 한국산 농기계를 포함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해 농업외교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상호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기후위기 등 전(全)지구적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이 회의에는 아잘리 아수마니 코모로 대통령을 비롯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해 에머슨 음낭가과 짐바브웨 대통령,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아프리카 9개국 장관 등이 참석한다.

우리 측은 'K-라이스벨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4개국(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대륙 내 쌀 생산성 향상도 모를 위해 한국의 우수한 종자와 농업기술을 공유한다. 한국은 또 코모로와 농업 분야 지식교류 및 민관협력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최근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6개국에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 2321톤(t)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성과를 냈다. 가나 330t을 비롯해 감비아 180t, 세네갈 66t, 기니 1119t, 카메룬 111t 우간다 515t 등이다.

지난해 시작된 K-라이스벨트 사업은 쌀 생산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여 기아 종식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의 국제적 농업 위상을 높이는 대표적인 브랜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작년에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예산을 활용해 해당 6개국에서 종자 시범생산을 개시했다.

당초 목표인 2040t을 14% 상회하는 2321t을 최종 수확했다. 정부는 이번에 수확된 종자 물량은 사업 참여국과 협의를 거쳐 농가에 보급하거나, 아프리카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자 시범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현지 종자 생산을 확대해, 오는 2027년부터는 연간 1만 t의 다수확 벼 종자를 생산하고 현지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 거주민 3000만 명을 대상으로 안정적 식량 공급을 실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냉동 떡볶이 등 쌀가공식품 한 자리에”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11일 개막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주관하는 '2024 쌀가공식품 산업대전'이 오는 11~14일 나흘간 경기 고양 킨텍스 제1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1년 시작해 올해로 14년째를 맞는 쌀가공식품 산업대전에는 총 49개 쌀가공식품업체가 참가한다. 국내외 유통업체·바이어에게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쌀가공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올해는 '글로벌 식문화의 리더 한국 쌀 가공품을 만나보세요'라는 주제로 최신 제품 및 동향을 소개하기 위한 종합전시관(주제관, 수출상담관)과 기업관을 운영한다.

종합전시관에서는 지난해 선정된 우수 쌀가공품(쌀플러스) 10개 제품을 선보인다. 또 최근 수출 효자 품목인 냉동 김밥·떡볶이·가공밥류 등을 비롯한 다



지난 2022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쌀가공식품 산업대전'의 모습. /뉴시스

양한 쌀가공식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기업관에선 떡·쌀과자·음료 등을 전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쌀가공식품 수출액이 2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4월까지 수출액은 8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쌀가공식품이 개발되고 국내외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 국제환경규범 대응 위한 인재 키운다

환경부, 심화 과정 등 800명 모집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제환경규범 대응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오는 25일부터 ESG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엔 지난해 대비 수강자 규모를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당초 150여 명 수강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465명이 교육에 참여한 바 있다. 올해는 작년 교육 수요를 반영해 양성규모를 800여 명으로 크게 늘렸다. 교육과정 횟수 역시 확대해 기업 실무자들이 ESG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ESG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현장에서의 인력난을 손꼽고 있

다. 환경부는 이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지난해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기존 '종합 교육과정' 외에도 '기초 교육과정'과 환경과 관련된 심화 주제(공시, 공급망실사, 전과정평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다루는 '심화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교육생들은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외에, 제품 단위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LCA), 공급망 실사 대응체계 구축방법 등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 “AI가 경력·연령 맞춰 일자리 추천해요”

일자리 정보 10월까지 단계적 확대  
'잡케어 서비스' 세부 임금정보 제공

앞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24'에서 자신의 경험과 경력, 연령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AI(인공지능)를 통해 추천받을 수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부터 '고용24'를 통한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에 연령대별 선호 일자리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일자리 추천 서비스가 추가된다. 'AI 일자리 매칭'은 딥러닝 기술(DeepFM)과 행동·직무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하는 서비스로 2020년 7월 서비스 개시 이후 연간 1300만건이 넘는 맞춤 일자리를 추천하고 최근 4년간 20만명이 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줬다.

앞으로는 20대는 희망직종, 30~40대는 희망직종과 임금, 50~60대는 희망지역을 중심으로 나와 동일한 연령대의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정보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또 AI 일자리 추천에 활용되는 일자리 정보도 현재 워크넷과 민간취업포털 정보기술(IT) 직종에서 민간취업포털 전 직종으로 10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구직자가 공공과 민간 일자리 정보를 빠짐없이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A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진로탐색·설계를 지원하는 '잡케어 서비스'도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18개월간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구직자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하던 노동시장 정보를 고용보험 정보까지 확대(8종 → 13종)해 구직자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궁금해하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잡케어에서는 임금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구인기업의 제시임금과 실제 취업 후 취득임금 차이, 희망직종에 취업한 후 근속기간이 증가함에 따른 보수정보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최근 온라인·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를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 과징금 감경

우수 사업자에 과징금 최대 20%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도입, 이를 우수하게 운영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

시)'도 새롭게 만들었다. 시행령과 고시는 CP 법제와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고시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인 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또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